

6일 만에 300만 훌쩍... ‘1000만 영화’ 보인다

‘공조1’ ‘탑건2’보다 흥행속도 UP
스토리·새로운 캐미·코믹액션 등
최대 흥행 ‘범죄도시2’와 닮은꼴
호평에 경쟁작도 적어 통런 예약
10월초까지 흥행몰이 여부 관건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이 추석 연휴 극장가를 휩쓸었다. 제작비 155억 원 규모의 영화는 연휴를 이틀 앞둔 7일 극장에 걸려 추석이었던 10일 하루에만 65만 명(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모았다. 이에 힘입어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봉 6일째인 12일 오전 손익분기점인 3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설 연휴 선보여 누적 781만 관객을 모은 1편의 개봉 초반 같은 기간보다 두 배나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 812만 명을 넘기며 장기흥행 중인 ‘탑건: 패버릭’보다도 빠른 흥행 속도여서 영화의 최종 성적에 영화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닮은꼴 ‘범죄도시2’ 따라 1000만 갈까

‘공조2: 인터내셔날’(공조2, 감독 이석훈·제작 CJ ENM, JK필름)은 1269만 관객을 모은 올해 최대 흥행작 ‘범죄도시2’와 여러모로 닮아 더욱 눈길을 끈다.

‘공조2’는 전편의 주역인 남북한 형사 유해진·현빈이 FBI 요원 다니엘 헤니, 범죄 조직의 리더 진선규 등 새로운 캐릭터와 일군 새로운 호흡으로 흥행을 이끌고 있다. 마동석 등 전편의 주요 인물과 새롭게 등장한 악역 손석구의 캐릭터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이 추석 연휴 내내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지키며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CJ ENM

를 매력적으로 녹여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2’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국내에 한정됐던 무대를 해외로 확장한 코미디 액션물이라는 점도 닮았다. 명절 연휴를 노려 개봉한 유일한 신작인 ‘공조2’에 대적할 눈에 띄는 경쟁작이 없었다는 점도 흥행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 투자배급사들은 여름시장을 겨냥한 대작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둔 데다 주말과 겹쳐 쏠아진 추석 명절 연휴를 피해 신작을 내놓지 않았다. 강익모 영화평론가는 “개봉 타이밍도 흥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고 설명했다.

● ‘이달 말까지 분위기 유지 중요’

‘공조2’의 연휴 흥행은 무엇보다 적절한 유머와 시원시원한 액션에 힘입은 바 크다. 영화는 남한에 숨어든 글로벌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나선 남북 미 형사들의 활약을 전편보다 커진 스케일 속에 현란한 액션과 웃음기 진한 이야기로 녹여내 호평받고 있다.

실제로 관객 평점 및 관객과 누리꾼의 리뷰 등이 이를 보여준다. 12일 멀티플렉스 CJ CGV의 실관람 평점 시스템인 ‘골든 예그’의 ‘공조2’ 지수는 95%이다. 또 다른 멀티플렉스 극장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관객 평점도 각각 10점 만점

에 9.3과 9.1로 높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공조2’의 흥행 지속 여부를 가름할 변수는 9월 말 줄줄이 개봉하는 신작 영화들이다. 21일 서인국 주연 액션물 ‘늑대사냥’을 시작으로, 28일 류승룡·염정아가 주연한 뮤지컬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와 라미란의 원톱 코미디 ‘정직한 후보2’가 나란히 관객을 만난다. 한 극장 관계자는 “신작이 몰리는 이달 말과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는 10월 초까지 ‘공조2’가 얼마나 기세를 유지할지에 따라 흥행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보름달 뜬 임윤아...올 추석 최고의 스타로 우뚝

‘공조2’열연...확실한 주연 도장
SNS 등 연기 호평 리뷰 잇따라
드라마 ‘빅마우스’ 오열연기 화제
시청률 상승 견인·땃글 폭발 ‘경사’

결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 임윤아가 추석 연휴 중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다. 7일 개봉 직후 줄곧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6일 만에 가볍게 손익분기점(300만)을 돌파한 ‘공조2: 인터내셔날’(공조2)과 연휴에도 화제성과 시청률을 모두 잡은 MBC 금토드라마 ‘빅마우스’로 극장과 TV를 동시 석권했다. 임윤아는 전편 이어 ‘공조2’에서도 남한 형사 유해진의 절없는 처제 민영 역

을 맡았다. 감조 조연 캐릭터로서 활약했던 전편과 달리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확실한 주연물로 발돋움했다. 특히 전편에서 첫눈에 반한 북한 형사 현빈과 새롭게 등장한 FBI 요원 다니엘 헤니 사이에서 나홀로 갈등하며 극의 가장 큰 웃음을 선사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와 관련한 임윤아의 연기를 칭찬하는 누리꾼의 리뷰가 쏟아졌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코미디와 액션의 결합으로 ‘범죄도시2’와 비교되고 있는 영화의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를 “임윤아와 그를 중심으로 한 ‘페이크 삼각관계’”라고 바라봤다.

연휴 영향으로 모든 미니시리즈들의 시청률이 폭락한 가운데서도 10%를 넘

은 ‘빅마우스’ 속 활약도 눈부셨다. 7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해 최고 12%(이하 닐슨코리아까지 꾸준히 시청률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는 연휴 첫 날인 9일엔 8.3%로 떨어졌으나 10일 10.6%를 기록, 10%대를 회복했다.

9일 방송분에서는 남편 이종석이 죽은 줄 알고 분노를 쏟아내며 오열하는 연기로 화제를 모으며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11일 유튜브에 공개된 해당 장면의 클립 영상에는 “윤아 연기가 미쳤다”, “윤아 연기를 보고 소름 돋았다”는 댓글이 수도룩 달렸다. 10일 방송분에서는 백형벌에 걸린 것으로 암시되는 엔딩을 장식하며 또 다시 온라인 화제성을 휩쓸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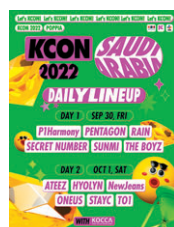
배우 이상보, 마약 혐의 체포...“토한 채 취침”



이상보

배우 이상보(41)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상보는 10일 오후 2시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현동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약에 취한 듯 보이는 남성이 거리를 뛰어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상보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이상보의 언행과 검음결과가 불안정했고, 입 주변에 구토 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상보의 자택에서 알약 수십 정의를 압박을 확보하고 성분을 조사 중이다. 이상보는 마약 투약을 인정했으며 병원 치료 후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06년 데뷔한 그는 지난해 KBS 일일극 ‘미스 몬테크리스토’에서 주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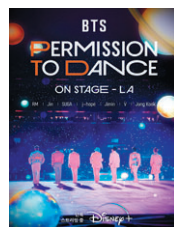
사상 첫 ‘케이콘 사우디’ 10월1,2일 개최



케이콘 2022

케이(K)컬처 페스티벌 케이콘(KCON)이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다. 12일 CJ ENM에 따르면 10월 1,2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에 있는 최대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 블라바드 리아드 시티에서 ‘케이콘 2022 사우디아라비아’를 연다. 비, 선미, 더보이즈, 에이티즈, 뉴진스, 효린, 스테이씨, 팬타곤, 티오원, 피원하모니, 원어스 등이 출연한다. 10월 14일과 16일에는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케이콘 2022 재팬’을 개최할 예정이다.

영화 ‘BTS’, 디즈니+ ‘세계 많이 본 영화’ 8위에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의 지난해 미국 LA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LA’가 디즈니+의 ‘세계 많이 본 영화’ 8위에 올랐다. 12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 순위 사이트 플릭스패프트를 따르면 8일 공개된 영화는 ‘버즈 라이트이 어’, ‘엔칸토’ 등 디즈니 자체 콘텐츠들이 포진한 차트에서 사흘 만에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디즈니는 7월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와 콘텐츠 협업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더쉴: 우정여행’ 등을 독점 스트리밍했다.

뉴진스 ‘어텐션’, 스포티파이 ‘위클리톱 송’ 진입



뉴진스

5인조 걸그룹 뉴진스가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12일 소속사 어도어에 따르면 뉴진스의 데뷔곡 ‘어텐션’은 10일(한국시간) 발표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미국’(3~9일) 차트에서 200위로 진입했다. 케이(K)팝 걸그룹이 데뷔곡을 해당 차트에 진입시킨 것은 처음이다. ‘어텐션’은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호주 등 17개 ‘위클리 톱 송’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뉴진스는 7월 22일 데뷔한 이후 국내외 음원, 음반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 ‘육사오’ 160만 돌파...손익분기점 넘어



영화 ‘육사오’

제작비 50억 원의 고경표·이이경 주연의 영화 ‘육사오’가 지난달 24일 개봉 이후 20일 만인 12일 오전 손익분기점 160만 명을 넘었다. ‘범죄도시2’, ‘마녀2: 디 아더 원’, ‘헤어질 결심’, ‘한산: 용의 출현’, ‘헌트’에 이어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6번째다. 같은 날 오후 ‘공조2: 인터내셔날’도 손익분기점(300만 명, 제작비 155억 원)을 넘었다. 저예산 영화임에도 관객의 입소문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해 영화계 안팎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50억 당천 로보 복권을 둘러싼 남북한 병사들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로 ‘박수건달’, ‘달마야 놀자’의 각본을 쓴 박규태 감독이 연출했다.

38년 만에 비상한 ‘송골매’...배철수·구창모·팬들 눈시울 붉혔다

11,12일 서울공연 2만 관객들 열광
‘희나리’ 등 3시간 동안 27곡 열창
“평생 잊지 못할 순간” 고마움 전해

1980년대를 품미한 록 밴드 송골매가 화려하게 비상했다. 송골매는 11,1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제초경기장)에서 전국투어 ‘열망’을 열고 2만여 팬들과 함께했다.

이번 콘서트는 송골매의 두 축인 배철수(69)와 구창모(68)가 38년 만에 함께 서는 무대라는 점에서 공연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송골매는 1979년 항공대 캠퍼스밴드 활주로 출신 배철수를 중심으로 결성했다. 1982년 홍익대 캠퍼스밴드 블랙레트라 출

신 구창모를 영입하며 밴드의 전성기를 맞았지만 1984년 정규 4집 발매 후 구창모가 팀을 탈퇴하면서 각자 길을 걸었다. 이날 두 사람은 ‘송골매의 날개’ 모임을 빛내 만든 무대 양쪽에서 등장해 하이파이브를 하며 부활을 알렸다.

이들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젊은의 상징인 청바지에 각각 흰색과 검은색 재킷을 입어 눈길을 끌었다.

구창모는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다니 코끝이 찡하고 목이 멘다. (배철수)친구를 잘 만난 덕이다”고 고마움을 드러내자, 배철수는 “구창모가 있어서 가능했다. 꿈인 지 생시인지 알떨떨하다”면서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기타를 메고 있으니 20대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히트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시작으로 ‘모여라’, ‘희나리’,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방황’, ‘사랑하는 이여 내 죽으면’, ‘모두 다 사랑하리’ 등을 연달아 부르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3시간여 동안 총 27곡을 선보이는 동시에 과거 추억 등을 회상하며 팬들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라며 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했다.

송골매는 이번 공연을 부산, 대구, 광주, 인천에서도 열고 전국 각지의 팬들과 만난다. 내년 3월 미국 LA, 뉴욕, 애틀랜타 등지에서도 공연할 예정이다. 이번이 송골매로 선보이는 마지막 무대라는 점에서 전



배철수(왼쪽)와 구창모가 12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에서 열린 전국투어 ‘열망’ 무대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공연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배철수는 이번 투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열린 공연 기자회견회에서 그는 “내가 음악을 하는 것보다 음악을 소개하는 것이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